



학자로서 죄고우면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사님, 선배님께서 더욱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6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학술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법률대상을 주관하는 대한민국법률대상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부족한 저를 추천해 주신 저의 은사이자 평생의 학문적 후견을 해 주시는 김철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겸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의 학문적 대선배이신 조병운 명지대학교 전 부총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의 대한민국법률대상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창립하신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님께도 마음 속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법률대상은 척박한 대한민국의 헌정사 속에서 오늘날의 민주법치국가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기여하신 분들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법률대상은 입법부문, 사법부문, 인권부문, 학술부문에 구획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 역대 수상자들의 면면을 보면 법률대상의 높고 깊은 수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법부문에는 두 분의 전 현직 대통령께서 수상하셨습니다. 제가 수상하게 된 학술부문만 하더라도 저의 은사이신 김철수 교수님께서 수상하였기에 본인으로서 너무도 황망한 자리입니다. 은사님의 그림자도 감히 뱉을 수 없을 정도의 미천한 학문적 역량과 활동에도 불구하고 은사님의 뒤를 잇게 되어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데에는 여러 은사님과 선배님들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언제나 학문적 성찰을 일깨워 주신 은사님과 선배님들에게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와 존경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하나마 저의 학문적 역정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김철수 교수님으로부터 일찍이 서울대 법대에 재학 중에 학생들의 공법학회 회장으로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프랑스 파리2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부족한 제가 프랑스에서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치헌법학전서’ 제70호로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상 각료제도’라는 단행본을 파리에서 출간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

니다. 학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은사님의 후임으로 서울대 법대 교수로 부임하여 열과 성으로 학문연구와 후학지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척박하였던 프랑스헌법학 이론을 펼쳐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995년에 간행되어 1000면이 넘는 프랑스헌법학은 저의 작은 연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1998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 최초로 언론정보법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학자로서는 은사님의 학계활동을 보필하면서 학자로서의 삶을 조금이나마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공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는 간사, 총무 등을 역임하면서 마침내 제가 회장으로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척박한 한국적 입헌주의를 널리 계몽하기 위하여 대외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과 같은 역할이 그러하였습니다. 특히 법치주의의 생활화를 위해서 법무부 법교육위원장을 맡게 되었고, 동아일보에 ‘성낙인의 법과 사회’라는 칼럼과, 매일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으로서 한국적 법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학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선(善)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나름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德牧取普 즉 덕으로 이끌어 가면서 널리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글귀는 제가 소중하게 여겨온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법학자로서 한 쪽에 쏠림이 없이 평상심을 가지면서도 널리 덕으로서 세상 일을 살펴보면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저의 작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부족하나마 이와 같은 저의 작성 정성이 오늘 법률대상위원회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감격스러울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법률문화 창달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이번 저의 수상이 앞으로 더욱 헌법학자로서 정진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학자의 길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자로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사님, 선배님께서 더욱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입춘을 지나 봄을 기다리는 이 좋은 계절에 저의 수상을 함께 축하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올리면서 수상 소감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2월 14일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成 樂 寅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존재로 환골탈태 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화의원입니다. 먼저, 제6회 대한민국법률대상(입법부문)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과 평가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법률대상은 그동안 제가 받은 상 가운데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각자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펼쳐온 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에게는 더없이 영예로운 상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기쁨도 크지만 집권여당의 5선 중진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유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헌헌법과 같은 해에 태어난 건국동이 국회의원입니다. 또한 포은 정몽주 선생의 30대손이기도 합니다. 지난 18년간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포은 조(祖)의 충효사상을 마음에 새기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왔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지시와 훈계보다는 솔선수범을 통해서 발휘됩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제게 대한민국 법률대상을 주신 이유도 국회부의장과 국회의장대행을 지낸 5선 의원으로서, 앞으로 더욱 정진해서 다른 의원들이 모범으로 삼을 만한 의정활동을 펼쳐달라는 데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땀 흘려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존재로 환골탈태 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시고 때론 따끔하게 질책도 주시는 ‘법률소비자연맹’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연맹 관계자와 심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2월 17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鄭 義 和



민생을 살피고 국민 여러분의 삶을 한 단계 높이는 국회, 국민의 신뢰를 받는 품격 있는 정치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법률대상이라는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정치 일선에서 활동해오면서 국민의 세비를 받는 공인으로서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잃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점점 투명해지고 생산성 있는 국회로 발전하게 된 것은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를 바라는 시민들의 여망과 법률소비자연맹과 같은 전문성 있는 시민단체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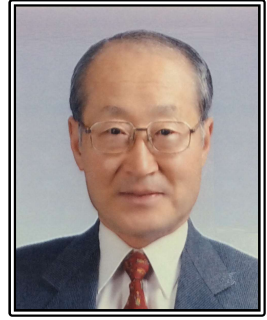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법률대상은 사실 정치인이 아닌 우리 국민과 법률소비자연맹과 같은 뜻있는 기관의 몫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상을 받게 되어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직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신과 반목이 넘치는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생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생을 살피고 국민 여러분의 삶을 한 단계 높이는 국회, 국민의 신뢰를 받는 품격 있는 정치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2월 17일

국회의원 丁世均



있는 힘을 다하여
유능제강(柔能制剛)의 심정으로
말은 일에 임하고자 합니다

1967년부터 40여년간 법관, 헌법재판관 및 변호사로서 재판 등에 임하여 오면서 말은바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본인을 귀 위원회의 제6회 대한민국 법률대상(사법부문) 수상자로 내정하였다고 하시니, 본인 개인적으로는 분에 넘치는 큰 영광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사법업무를 끝낼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 유능제강(柔能制剛)의 심정으로 말은 일에 임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본인을 귀 위원회에 적극 추천하시고, 제6회 대한민국 법률대상(사법부문) 후보자로 내정하여 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리오며, 법률소비자연맹의 김대인 총재님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 2월 17일

전 헌법재판관 金 榮 一



언제나 스스로의 식견과 지혜가 부족함을 자각하고 나름대로 분수를 넘지 않는 초심의 법학도와 같은 자세를 지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평생 법률가로서 검사, 법학교수, 반부패정책 및 법무행정가로 봉직해왔지만, 언제나 스스로의 식견과 지혜가 부족함을 자각하고 나름대로 분수를 넘지 않는 초심의 법학도와 같은 자세를 지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대한민국 법률대상위원회가 이러한 저를 인권부문 수상자로 결정해 주신 큰 베풀도 일개 법조선비에 불과한 저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분한 배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법 보다는 예(禮)나 도덕성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법치주의가 뿌리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인치(人治)니 권치(權治)니 하는 말들이 자조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회현실 속에서 법률분야 종사자들이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좌절감 또한 적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수분지성(守分至誠)이나 출즉유위(出則有爲) 처즉유수(處則有守)를 삶의 한 지표로 삼고 있는 저 개인으로서는 이번의 과분한 시상 또한 저의 인간적 미흡함을 일깨워주고 법률가로서의 부끄러움을 가중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한국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 이 행사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로 천명된 국민의 인권의식과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고양시키는 한 울림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2월 17일

전 법무부장관 鄭 城 鎭



인권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대한민국 법률대상(사법개혁부문)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의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법률대상 위원회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큰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지난해 말 제 인생의 전부이자, 보금자리였던 경찰을 떠나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약관의 나이에 경찰조직에 투신하면서 맺은 인연이 36년이라는 긴 세월의 강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에 재임하는 동안, 저는 경찰의 존재는 국민을 위한 것임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경찰’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찰청에 외사국을 설치하고 해외주재관을 대폭 증원하여 재외국민 보호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재래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등 교통체계 선진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 것은 지금도 긍지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2011년 경찰청 정보국장 재임 때는 경찰과 검찰 사이의 현실에 맞지 않은 수사체계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체계로 바로잡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여, 경찰수사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형소법 개정’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람과 성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제도의 피해자가 되어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투쟁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은 실로 가슴 아픈 기억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 대한민국 법률대상을 수상하면서 인권과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를 다시 한 번 상기해 봅니다. 사법정의를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민이 부여한 사법 권한을 절대로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못된 예단을 가지지는 않았는지, 인권침해는 없는지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한데 모아진다면, 국민의 인권과 정의가 존중되는 나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확립된 사회는 머지않은 장래에 이루어지리라 확신해 봅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 법률대상 수상자라는 영예를 안고 앞으로 인권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대한민국법률대상위원회와 법률소비자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014년 2월 17일

치안정감 李 喆 圭



Acceptance Speech
The 6th Korea Good Law Award
February 17, 2014
Seoul Palace Hotel

김대인 총재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법률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외교관으로서,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상은 제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 성김(Sung Y. Kim) 대사는 로스쿨 졸업후 LA검찰청 검사를 역임한 법률가임. >

특히 법과 인권 분야의 최고 권위자분들과 함께 수상하게 되어서
더욱 영광스럽습니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사법정의와 법치를 토대로,
또한 법과 인권 분야의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한미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뜻 깊은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he due administration of justice
is the firmest pillar of good government*

주한 미국대사 *Sung Y. Kim*

